

제3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개최



대전 뿌리공원에서 제3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7-9일 오후 2시에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세계유일, 세계최초의 "孝(효) 테마 뿌리공원에서 전국 및 해외에서 150,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주최,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3회 대전 "孝(효) 문화뿌리축제"가 효와 성씨를 주제로 나의 뿌리를 찾고보고 조상의 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3시에 한국의 286성씨 중 136개 문중의 성씨기(姓氏旗)를 선두로 문중의 긍지와 우수성을 알

리는 웅장한 퍼레이드에 우리 안동 권씨 문중에서는 권호준 대전종친회장 및 족친 100여명이 참석하여 문중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어 개막행사에 들어가 염홍철 대전시장의 기념사와 권선택 의원, 이상태 대전시의회의장, 김신호 교육감, 등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행사에 들어가 조상님들께 고하는 만성선조송모제(萬姓先祖崇慕祭)를 올렸으며 전국한시백일

장 장원시상과 문중의 번영을 기원하는 희망풍선 날리기와 문화공 행사로 대전(孝)마당극, 세대공



문중 체험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감콘서트, 세계전통무용 전통혼례 및 관례재현, 서정염장수 놀이, 효 문화뿌리영상 갤러리, 미니콘서트, 수상전통공연, 낙화놀이, 전통놀이 마당, 외줄타기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한 이곳에 효문화 계승을 위해 있는 한국족보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안동권씨성화보(1476)를 비롯하여 많은 성씨의 족보가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는 조선시대의 왕실족보와 고려시대, 조선초기·중기 이후 조상의 면모를 살필 수 있고 조상의 얼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곳 만성산자락에 있는 '성씨조형물'은 우리 안동권씨문중은 "102"번으로 설립되어있다.

한편 뿌리공원은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 1997년 11월 1일 개장한 가족친화 테마 공원이며 도심속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충효의 산교육장으로 각

광받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사진 권범준 기자)

第5回 高麗大殿 大祭奉行

고려대전 대제봉행

지난 10월2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서는 제5회째 맞이하는 2011년도 신묘년 고려대전제가 고려 역사를 선양하는 성충공열사(聖忠功烈士)의 공훈을 추모하고 국민단결과 통일을 기원하는 대제(大祭)가 봉행되었다.

이곳 고려대전은 고려 오백년의 찬란한 역사가 산일멸실(倏逸滅失)된 통한의 망국지한(亡國之恨)을 극복여년이 지난 오늘에 천추의 한(恨)을 산화하는 산실이 되고 고려역사 현신열사(賢臣烈士)들의 덕업을 현창(顯彰)하고 정충대절(精忠大節)로 신명을 다 바친 신승국제현(勝國諸賢)의 배사(配祀)를 위하여 천만예손(千萬裔孫)은 송악산(松嶽山) 푸른빛이 한강수와 협화(協和)하는 고려대전 전당에 제왕 34위, 충헌공열사(忠賢功烈士)355위의 존령(尊靈)을 배향(配享)하고 고려(古禮)를 찾아 정결(淨潔)한 예제(禮齋)를 갖추어 올리는 대제(大祭)이다.



제5회 고려대전 대제가 봉행되고 있다.

이날 대제 행사에는 이정례(李貞禮)씨 집례로 진행되었으며 헌관 분정(分定)은 초헌관 김길수(金吉洙) 고려선양회 부총재, 아헌관 신현석(申鉉錫) 경기도 도의원, 종헌관 이세준(李世濬) 고려선양회 당에 제왕 34위, 충헌공열사(忠賢功烈士)355위의 존령(尊靈)을 배향(配享)하고 고려(古禮)를 찾아 정결(淨潔)한 예제(禮齋)를 갖추어 올리는 대제(大祭)이다.

공국신인 시조태사공(始祖太師公) 휘(諱) 행(幸), 으로부터 13세 국제공(菊齋公) 휘 보(溥), 14세 정헌공(靖獻公) 휘 후(熙), 14세 사복제(思復齊) 휘 정(定), 15세 밀직공(密直公) 휘 중귀(重貴), 15세 영가군(永嘉君) 휘 상좌(上佐)등 여섯 분이 배향되어 함께 엄숙히 봉행되었다.

<권범준 본원기자>
권문(權門)의 선조님은 고려 초 개

제23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

영천청장년회 주관 영천시민운동장에서

다-함께 화합하는 백만 권문 세계 속으로... 라는 대회 슬로건으로 지난 3회 대회를 치른 적이 있는 영천에서 지난 9월25일 오전 10시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가 주최하고 영천청장년회가 주관하며 안동권씨대중원, 영천종친회가 후원하는 제23회 전국 안동권씨청장년회 체육대회



전국 25개 청장년회 임장식(왼내 좌:권정달 대동원 총재, 우:우승기를 반환받은 권병혁 영천청장년회장)

가 25개 지역의 팀으로 약 3천7백 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시전행사는 별빛풍물단의 풍물놀이로 대회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이어 대구방송국 이도현 아나운서의 개시통고에 따라 기수단 및 선수단이 입장하였으며 이어서 국민의례, 태사공 할아버님께 망배가 이어졌다.

영천청장년회 권세록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권정달 대동원 총재, 정희수 국회의원, 권오을 국회의무총장, 권영성 영천청장년회장을 비롯한 중앙 및 지역의 내외 귀빈의 소개가 전광판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는 친지 일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회가 입장은 영천청장년회 부

인회에서 입장하여 계양이 있었으며 전년도 대회 우승팀인 안동청장년회의 우승기 반환이 있었고 이어서 권정달 총재의 공로패가 영천청장년회 권정달 전 회원, 권종관 직전회장에 수여되었으며 권병혁 대회장의 감사패가 지난 22회 대회 청송청장년회 권병섭 대회장, 권영민 준비위원장, 권용오 사무국장, 권영백 재무국장에게 전달됐다.

권영성 영천청장년회장의 환영사, 권병혁 대회장의 대회사를 통해서 영천을 방문한 족친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하였다.

이어서 권정달 총재의 격려사와 바쁜 국사에도 불구하고 본 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정희수 국회의원, 권오을 국회의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권오석 선수로부터 선수대표 선서가 있었고 선수단 퇴장 후에 영천의 별빛풍물단의 사물놀이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경기에 들어가 △400m 릴레이는 1위:청송청장년회, 2위:대구청장년회, 3위:제천청장년회 △공굴리기 1위: 예천청장년회, 2위:대구청장년회, 3위:경주청장년회 △단체 줄넘기 1위:대구청장년회, 2위:예천청장년회, 3위:문경청장년회 △세기차기 1위:제천청장년회, 2위:서울청장년회, 3위:부산청장년회 등이 입상하였다. 또한 경기 중간 중간에 150여점의 경품을 먼 길에 먼저 돌아가는 참가선수들에게 골고루 반납할 수 있도록 추첨이 병행, 진행되었다. <4면에 계속>

백인(百忍) 권준(權俊)장군 독립운동

어록비(語錄碑) 제막식

지난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독립기념관 시어록비(詩語錄碑) 공원에서는 박유철 국가보훈처 광복회장, 김능진 독립기념관장, 권문(權門)에서는 권태일 본원고문, 권경석 대중원사무총장, 권정섭 부총재 등 그리고 기념사업회 유족 대표로서 권준 장군의 장손(長孫) 권영철 회장을 비롯한 권태강 파친회장, 광복회 회원 단체 등 서울과 상주 등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100번째 시행되는 항일 독립유공자 백인(百忍) 권준(權俊, 1895-1959)장군의 어록비 제막식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공(公)의 차손(次孫)인 권영빈 중앙대학교수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부터 장군의 약력보고 및 어록비 제막식 이어 축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축사는 박유철 광복회장, 김능진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유족 기념사업회 회장인 권정달 안동권씨 대중원총재는 권경석 사무총장이 대독하여 "오늘 날 100만 안동 권문이 각계에서 공업(公業)에 충실하고 있는 그 불굴의 정신과 보은(報恩)의 잠재의식은 시조님과 선현들의 음덕(陰德)이라 하였으



독립기념관 시어록비공원 권준 장군 어록비 앞에서 행사 후 관계 후원회 및 유족대표와 기념촬영

며 권준장군님의 보국진충(報國盡忠)의 정신이 선조님들의 혈맥에서 나왔으리라 여겨집니다.

지난해 9월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어 백범기념관에서 학술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오늘 또 독립기념관에서 선생의 어록비 제막식을 갖게 됨은 나라에서 장군님의 공적을 높이 찬양함 일진에 권문(權門)의 제 족친은 장군의 '얼'을 새겨 더욱더 국가에 보답 할 것 입니다. 어록비 건립에 힘써 주신

국가보훈처와 박유철 광복회장님께 100만 권문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장손 권영철 형제들의 조부(祖父)를 받드는 가특한 마음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장군은 1919년 단체 신채호 선생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항일 무력 독립운동 단체인 열단 창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어 장제스(蔣介石)가 교장인 황포군관학교에 입학, 군인의 길을

걸었다.

졸업 후 중국 국민혁명군 장교로 임관해 항일 진전에 나섰다. 이후 1932년 중국 난징에 조선혁명 군사정치학교를 설립 1937년 조선의용대 비서장으로 항일 투쟁에 나섰고, 남경한인학교를 설립, 독립운동을 양성하였으며 1944년 임시정부 군사학 편찬위원 1945년 무한지구 교포선무단장 겸 광복군 제5지대장을 역임하고, 1946년 귀국해 관구사령관 등을 지내고 195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또한 장군의 아들 고(故) 권태후 전 한국전력 팔당수력발전소장은 항일 지하활동 공로로, 며느리 고(故) 민영숙 선생은 임시정부에서 일본군에 끌려간 학도병들에게 대적(對敵) 방송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1988년에 장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어 오늘 어록비(語錄碑)에 새긴 글처럼 장군의 구국에 대한 '얼'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직손(直孫)들의 가특한 정성(精誠)도 함께 하면서 엄숙하고 경건(敬虔)이 행사를 마쳤다.

<본원 권범준 기자>

始祖·朗中公 秋享祭 宗務委員會 案内

시조·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追遠報本の 정성으로 우리모두 子孫된 道理로 많이 參祀 바랍니다.

△ 2011년 11월 7일(월) 오후 4시 중무위원회(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석전 대당회

- 太師公(始祖) △일시: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9시
△장소: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태사공 묘소
- 郎中公(亞始祖) △일시: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낭중공 단소

연락처 : (02)2695-2483~4 (안동권씨대중원), (054)854-2256 (안동사무소)

2011년 11월 1일
安東權氏 大宗院 總裁 權正達

安東權氏宗報

宗是: 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後學啓導寄與·社會倫理培養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영철 인쇄인 권영철

발행장소: 安東權氏大宗院: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테사료 안내: (054)859-2346

E-mail: ankwonjung@yahoo.co.kr / andongkwon@paran.com

編輯委員	권계동, 권오복, 권태하
記者	권범준, 권오인, 권희세, 권경일
자문위원	권정달, 권영환, 권태하, 권영섭,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종친회, 대중회) 권경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종친회) 농협 076-02-247343
증보사(개인독자) 우체국: 증보사 010108-01-000369